

신냉전에 발목잡힌 유엔 총회 ‘헛바퀴’

우크라이나·미중 갈등에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 중 4개국 불참 “지정학 문제 해결할 무대 아냐” 유엔 약화에 G20 등 대안 부상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개최 중인 제78차 유엔 총회가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중 갈등 등으로 인한 ‘신냉전’ 기류 속에서 무기력한 상태에 빠졌다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19일(현지시간) 진단했다.

통상 유엔총회가 열리면 전세계 지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열띤 논쟁을 벌이곤 했으나, 올해에는 시급한 글로벌 현안이 산적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위기가 확연히 가라앉았다는 것이다.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단면이 바로 이날 진행되는 유엔총회 ‘하이라이트’ 일반토의에서 드러난 각국 정상들의 저조한 출석률이다.

특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 중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제외하고 4개국 정상이 참석하지 않는 것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불참할 것이 어느 정도 예상된 바이지만, 영국과 프랑스마저 얼굴을 비치지 않는 것은 의외라는 평가다.

FT는 “리시 수석 영국 총리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부재는 안보리가 더이상 지정학적 문제를 해결할 최고의 무대가 아니라는 느낌을 강하게 보여준다”고 짚었다.

미 싱크탱크 애틀랜틱카운슬의 매튜 크로너는 “이것이야말로 이 기구의 가치에 대한 그들의 생각을 반영하는 것”이라며 “각국 지도자가 이곳에 와서 공개 연설을 하곤 하지만, 결국 아무 일도 성사되지 않는 장소”라고 말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나 주요 7개국(G7) 등 같은 생각을 가진 강대국들로 구성된 국제기구는 공통의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만큼 제대로 기능하지만, 신냉전 기류 속에서 여러 적대적 강대국을 한데 모아놓은 유엔 같은 기구는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주요 20개국(G20)의 경우 좋은 토론의 장이 될 수 있으나, 구속력을 갖는 규정이나 각국의 결의를 수행할 집행부도 없다는 점에서 유엔을 대체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FT는 이같은 현상이 단순히 유엔의 쇠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작동 방식에 중대한 변화를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외교가에선 동서간 냉전이 한창이던 1970~80년대를 제외하면 이런 교착 상태가 거의 없었다는 분석이 나온다라는 것이다.

서방국들은 안보리 논의를 마비시키려는 러시아의 움직임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FT는 전했다.

이제껏 시민사회가 안보리 토론에 접근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던 러시아가 최근 들어서는 ‘서방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자극했다’고 주장하는 록그룹 핑크플로이드의 로저 워터스 같은 인물을 연사로 초대하곤 한다는 것이다.

한 익명의 서방 외교관은 “러시아는 자질이 부족한 연사나 옹호자들을 불러 안보리의 토론 수준을 저하하기도 한다”며 “우리를 녹조로 만들고, 안보리의 입지를 더 약화하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FT는 “안보리가 더욱 세계의 협안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1945년 부여된 5개 상임이사국 지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 미국은 G20이나 미국·인도·일본·호주 4개국 협의체인 콰드(Quad), 미국·영국·호주 삼각 안보동맹인 오키스(AUKUS) 등 새로운 다자협의 틀을 육성해오고 있다.

유엔 주재 영국대사를 지낸 제레미 그린스톡은 유엔이 앞서 희미해져 간 국제기구의 운명을 따라갈 수 있다면서도 “유엔은 약해졌지만, 아프리카에서는 여전히 엄청나게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린스톡은 “집단주의 정신이 다시 살아나야만 한다”며 “유엔이 일할 곳이 G20이 될지도 모른다”고 덧붙였다.



블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가운데)이 19일(현지시간) 제78차 유엔총회 일반토의가 열리는 미국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도착해 환영받고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유엔총회에 직접 참석한 것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이번이 처음으로, 이날 총회장에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들어서자 환호성이 쏟아졌다. /연합뉴스



19일(현지시간)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의 영토 분쟁 지역인 나고르노-카라바흐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한 후 주거용 아파트가 손상돼 있다. 이날 아제르바이잔 국방부는 아르메니아의 지원을 받는 나고르노-카라바흐 자치군 진지를 포격하며 반테러 작전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와 또 무력충돌

중화기 동원해 공격 5명 사망

국제사회 긴장완화 촉구 목소리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의 영토 분쟁 지역인 나고르노-카라바흐에서 무력 충돌이 또 발생했다. 양측이 충돌에 중화기 동원되고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하자 국제사회는 두 국가 간 갈등이 전면전으로 확산할 가능성을 우려하며 긴장 완화를 촉구했다.

AP 통신 등에 따르면 아제르바이잔 국방부는 19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나고르노-카라바흐 자치군 진지에 포격을 가하며 반테러 작전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아제르바이잔 국방부는 “아르메니아 군대의 전투 자산과 군사 시설 등만 정밀하게 무력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민간인 피해가 상당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나고르노-카라바흐의 아르메니아인 분리주의자들은 아제르바이잔군이 전투용 항공기, 대포, 공격용 드론 등을 동원해 자치 지역을 공격했으며 이 과정에서 5명이 숨지고 80명이 부상했다고 밝혔다.

분리주의자들이 운영하는 포털은 “부상자들 가운데 15명은 여성, 노인, 어린이 등 민간인들이었다”고 주장했다. 아르메니아 정부는 성명을 통해 “오늘 공습은 나고르노-카라바흐 주민들에 대한 아제르바이잔의 전면적인 공격”이라고 비난했다.

아제르바이잔의 공격은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에서 이날 오전 차를 타고 이동하던 아제르바이잔의 고속도로 사업 담당 직원 2명과 군인 4명 등이 잇따라 지뢰 폭발로 사망한 사건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 보인다.

이 지역에 주둔하는 자치군을 쫓아내 현정질서를 회복하겠다는 명분도 아제르바이잔 국방부는 내세웠다.

“푸틴, 내달 중국 방문...시진핑과 회담 기대”

러 안보서기-중 왕이 회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내달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할 것으로 예상된다. 니콜라이 파트루세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가 19일(현지시간) 밝혔다.

파트루세프 서기는 이날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 회담하면서 “러시아 대통령의 일대일로(一帶一路) 포럼 참석의 일환으로 10월 베이징에서 푸틴 대통령과 시 주석의 세밀한 양자 협상이 열릴 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타스 통신 등이 전했다.

전날 모스크바에 도착한 왕이 주임은 오는 21일까지 제18차 러시아-중국 전략안보협약에 참석할 예정으로, 이 기간 푸틴 대통령과 시 주석의 정상회담을 조율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달 중국에서 푸틴 대통령과 시 주석이 만난다

면 지난 3월 시 주석의 러시아 국빈 방문 이후 약 7개월 만에 두 정상 간에 이뤄지는 회담이다. 당시 시 주석은 푸틴 대통령에게 중국에 방문해 달라고 요청했다.

푸틴 대통령은 3월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체포영장을 발부한 이후 첫 해외 방문지로 중국을 택했다. 지난주 북극 정상회담은 김 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한 자리에서 열렸다.

러시아 국가안보회의는 이날 회담에서 “양측이 주권 국가의 내정 간섭에 대한 공동 투쟁에 관심을 기울였다”며 “러시아와 중국의 군사 및 군사기술 협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밝혔다.

또 “한반도 상황과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상황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덧붙였다.

푸틴 대통령의 측근인 파트루세프 서기는 중국과 포괄적 파트너십과 전략적 협력 관계를 꾸준히 발전시키고 강화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홍콩, 53년만에 ‘최고 경제자유 지역’ 왕좌 내줘...“중간섭 심화”

캐나다 연구기관 조사

싱가포르 1위·한국 42위

‘아시아 금융 허브’ 홍콩이 53년 만에 ‘최고 경제적 자유 지역’ 타이틀을 빼앗겼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캐나다 공공정책 연구기관 프레이저 연구소는 19일(현지시간) 발간한 ‘세계 경제적 자유: 2023 연례 보고서’에서 홍콩이 해당 보고서가 작성되기 시작한 1970년 이후 처음으로 ‘세계 최고 자유로운 경제 지역’ 자리에서 내려왔고 라이벌 관계인

싱가포르가 1위로 올라섰다고 밝혔다.

프레이저 연구소는 세계 165개 사법권을 대상으로 경제적 자유를 조사한 결과 싱가포르, 홍콩, 스위스, 뉴질랜드, 미국, 아일랜드, 덴마크, 호주, 영국, 캐나다 순으로 ‘톱 10’을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42위에 올랐으며 대만 11위, 일본 20위, 독일 23위, 프랑스 47위, 이탈리아 53위 등을 기록했다.

중국은 111위이고, 꼴찌는 베네수엘라다. 프레이저 연구소는 중국의 간섭 심화 탓에 홍콩이 1위 자리를 내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국 정부가 홍콩에서 중대한 신규

진입 장벽을 세우고 외국 노동자의 고용을 제한하며 비즈니스 비용을 증대시켜 규제 항목에서 0.25포인트 하락을 이끌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치에 대한 군사적 간섭 증가, 사법 독립과 홍콩 법원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 저하는 법체계·재산권에서 0.20포인트 하락으로 이어졌다”고 덧붙였다.

반면 싱가포르의 정부 규모와 규제 요소에서 개선을 보이며 0.06포인트가 상승해 홍콩을 제치고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홍콩 정부는 홍콩의 규제 환경은 변하지 않았으며 일국양제(一國兩制) 국가 두 체제와 고도의 자치를 유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연합뉴스

멀고 먼 옛날의 사람들은 완행열차로 떠나갔는데



전원범 문학 인생 60년 기념 전원범 문학 전집(시·시조·동시·선집) 출간

인간의 영혼이 만들어 내는 숭고한 정신과 삶의 역사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깊은 서정 속에서 펼쳐 보이는 전원범의 시는 시의 미적 형식을 넘어선 자리에서 인간과 삶과 자연의 아우라를 정리하는 통찰을 제공한다. -오윤호(문학평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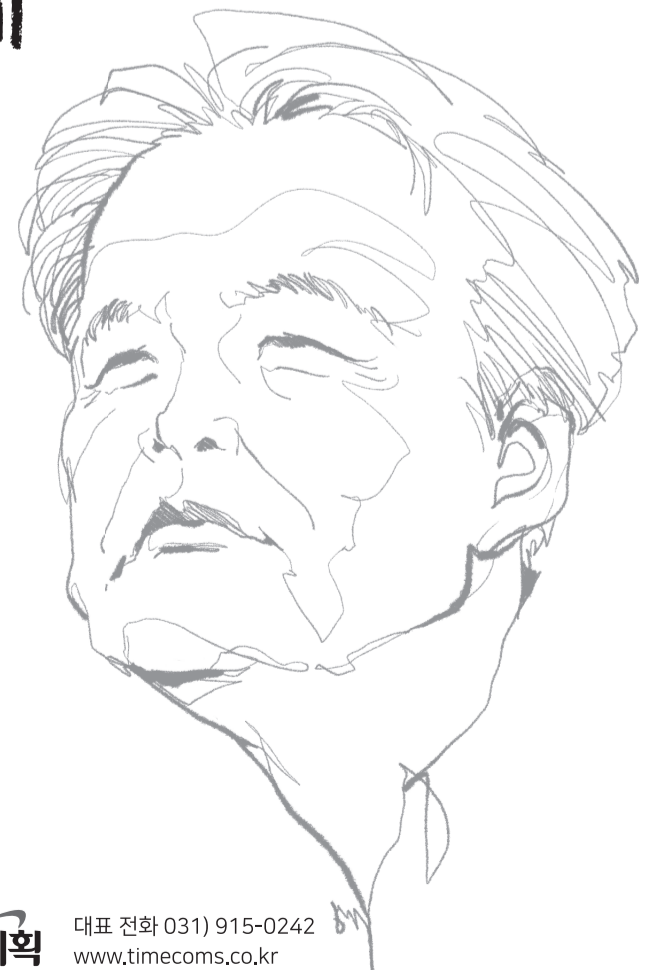
전원범의 시조가 보여주는 주된 정조는 그리움이며, 쓸쓸하면서 맑은 정신 지향은 번잡한 우리 현대인들에게 마음의 휴식처를 마련하여 준다. -임창권(시인, 광주교대 교수)

전원범 동시 세계의 축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 해와 하늘과 꽃이다. 그는 이를 통해 밝고 맑고 아름다운 동심의 세계를 표현한다. -이준관(시인, 아동문학가)

전원범 문학 전집 세트 총 4권, 100,000원

『망초꽃으로 서서』(시 전집) 『동근 해를 궁굴리며』(동시 전집)
『선운사 동백꽃』(시조 전집) 『전원범 문학선 99』(역문 선집)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 판매 중



타임기획 대표 전화 031) 915-0242
www.timecoms.co.kr